

경기도

남한산성 인삼닭죽 판매 재개



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음식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이 품질 5개월만에 2차 출시됐다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은 판매대박으로 지난해 8월, 시판 9개월만에 2만5천개 생산물량이 동나 판매 중단됐다가 소비자들의 재입고 요청이 쇄도해 성남시는 위탁 제조업체인 동원 F&B를 통해 닭죽 5만개를 재생산, 판매 재개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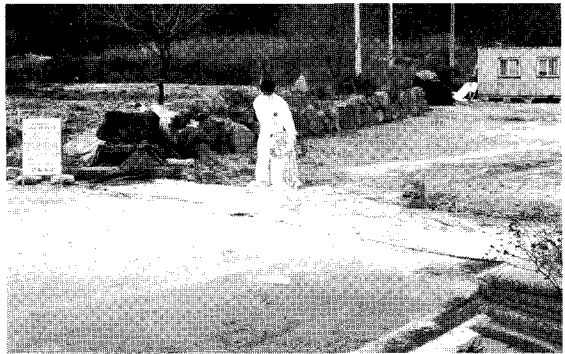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은 성남지역 내 AK플라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한 캔에 2천350원~2천600원에 판매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닭죽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연구결과로 내놓은 표준화된 요리법에 따라 285g들이 캔 1인분에 100% 국내산 닭과 쌀, 금산인삼을 재료로 만들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남한산성 닭죽을 그대로 재현한 맛과 영양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속 생산 체제에 들어가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AI 유입차단에 총력



강원도가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정기소독 여부 및 소독시설 관리실태 지도 등 사전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2월 10일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철새 분변검사를 통해 전이 가능성이 있는 고병원성(H5형)이 한차례 발견된 바 있어 야생조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주의 사항을 특별 당부했다.

특별 주의사항은 가금사육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개방형 가금류 축사 차단막 설치, 철새 서식지 등 관광(방문)객에 대한 신발소독, 철새분변 접촉 시 AI 오염가능성 홍보 강화(입간판 설치 등), 철새 서식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 집중 방역, 가금류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및 통제 철저, 축사 내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축사전용 장화 신기, 사육 가금류에 대한 임상관찰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야생조류 분변 모니터링검사에 대한 집중관리지역으로 춘천 이외에

철원지역을 비롯해 강릉 경포호 및 속초 청초호 등 철새도래지 3개소가 추가로 지정돼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거 세차례(2003~2004, 2006~2007, 2008)의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겨울철새 등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 방안이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등 동남아시아에서 고병원성 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방역업무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한 곳에 집중됨에 따라 시 예찰 등 차단방역 공백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시 상시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사업 추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0년도 가축전염병 방역과 예방대책사업에 3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춘계가축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사업비를 보면 소탄저·기종저외 12종의 악성가축전염병예방 및 소모성 질병예방접종 사업비로 소, 돼지, 닭, 개 예방주사 2억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소·돼지·닭·꿀벌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및 소브루셀라병 검사, 기생충구제 등 청정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춘계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122종으로 확대했다고 지난 2월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검사 항목(104종) 보다 17.3%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는 또 최신 검사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잔류물질 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검사 물량도 지난해 1천180건에서 22.9% 늘어난 1천450건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군,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만전

홍성군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리홍보를 강화하는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점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가축분뇨 처리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2,768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리 안내문을 발송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내문에는 잘못된 가축분뇨 처리실태 사진과 최소한 농가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가축분뇨는 반드시 처리시설에서 처리(퇴비, 액비, 정화) ▲주거시설 200m이내에서 액비 살포 자제 ▲축분, 퇴비는 도로변 및 농경지에 야적하지 말기

▲일정규모 이상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말, 사슴 사육시설은 반드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받기 등 관리 요령이 명시되어 있다.

홍성군은 단속위주 보다는 축산농가가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점차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북도

친환경 축산물인증·안전축산물직불제 '전국상위권'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가 축산정책의 방향을 '친환경축산 선진도 육성'에 중점을 두고 2007년도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률과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률은 전국 2,135농가 중 15%를 차지한 316호가 인증을 받아 전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증농가가 많은 지역이 됐다. 축종별로 보면 한우 176농가, 닭 100, 육우 16, 돼지 14, 오리 6, 젖소 3, 사슴 1농가이다.

인증절차는 희망농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게 되며 농가의 사육실태 기록, 사료검사, 수질검사, 영양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증이 되며, 인증이 되면 2년간 유효하게 되고 인증기간 중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게 된다.

충북도는 올해에도 84농가에 7,500만원을 들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축종별 지원단가는 소의 경우 농가당 90만원, 돼지·닭은 4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친환경축산물인증 전국상위권 유지와 친환경축산안전직접직불제 수혜 혜택이 많은 친환경축산농가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통해 학교급식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안전 축산식품 생산에 155억원 투입

전라남도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올해 가축방역사업에 15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111억원)에 비해 무려 39.6%(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방접종·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28억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지원에 1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가축 방역사업은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중점을 뒀다.

특히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닭 감보로병 백신'을 신규사업으로 도입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환기시스템을 도입해 가축의 위생적인 사육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사 환기 개선사업과 돼지의 소모성질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도 지원사업에 13억원이 투입된다.

고병원성 시 유입 방지 방역대책 강화

전라남도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새 도래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AI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색출해 질병 확산 전에 박멸하는 사전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 차단방역 등의 상시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월 2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AI 연중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한 이후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전화 및 임상예찰 15만건, 닭·오리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4만1천816건, 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해왔고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올해도 모든 경로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를 실시해 AI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조기에 검색해나갈 방침이다.

의심축 발견시는 초동방역팀을 즉시 투입해 이동 제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모니터링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생물안전등급 BL-3급 국제수준의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국제 인증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도에 국제수역사무국

(OIE)으로부터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인증을 받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닭과 오리 등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조류의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을 근절하기 위해 ‘가금전염병 청정화 3개년 종합 추진계획’을 추진,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OIE에 제출, 국제 인증을 받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3차례에 걸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리와 거위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의무화됨에 따라 백신향체 검사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검사 결과들을 OIE에 제출하고 타 지방으로부터 반입 금지되고 있는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포획이 어려운 야생 조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임상예찰과 분변 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2건의 뉴캐슬병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가금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2007년에는 4,961건 2008년 7,146건, 2009년 1만2,235건의 조사를 벌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뉴캐슬병 병원체 검사를 다음달까지 1차 조사에서 5,949건, 4~6월 2차 조사 시 5,220건, 7~12월 3차 조사 때는 4,980건 실시할 방침이다. 